

자동차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에 맞는 안전관리활동 구축

정문에서부터 출하차량의 분주함이 최근 불어오는 국내 경제의 침체속에서 우리 나라 경제를 지탱한 곳이 바로 이 곳이구나 하는 생각에 절로 마음이 든든하다. 우리 나라 자동차 산업의 선두이며 세계 선진계열에 들어선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뀌온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현대정신을 발휘하여 기아자동차와 함께 2010년까지 세계 5위 이내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메이커로의 도약과 금년도 302만대 판매를 경영목표로 목표달성이 목전에 와 있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선진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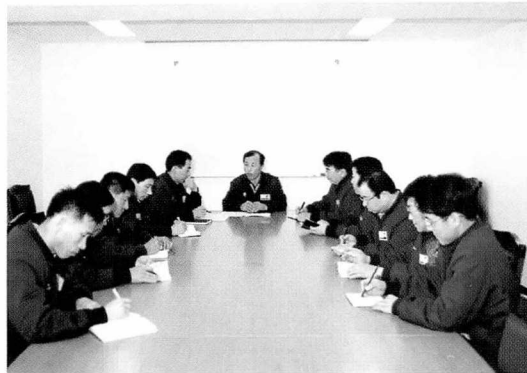
울산시 북구 양정동에 1967년 12월에 설립된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대표이사 이계안)은 국내 40%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자동차 전문회사로 세계로 도약하고 있으며, 안전에도 선진대열에 올라서기 위해 오늘도 무재해를 일궈가고 있는 것이 “전사적 위험요인 사전 대응체제 구축”이라는 2001년 탄력경영방침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럼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에서 무재해 사업장으로 만들기 위해 “이정환 팀장”을 비롯해 모든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안전활동을 실시하고 있

는 주요 안전관리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교통안전지도요원 제도 운용

이 곳은 부지가 넓어서 울산광역시 안에 있는 또 다른 도시라할 만큼 넓다. 공장내에서의 이동 및 출퇴근은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이동수단으로 하고 있어, 사내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며 그 중 하나가 바로 “사내 교통안전지도요원 제도”이다. 이 제도는 출퇴근 시간 혼잡지역 교통정리, 사내도로 통행차량 안전지도, 사내도로 관리를 위해 교통안전 전문지도요원을 배치하여 차량 소통을 통제하며, 교통순찰차, 스피드브레이크를 이용한 과속 및 신호위반차량을 적발하여 근로자에게는 징계조치를 하고, 협력업체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 안전회의

사업장에서의 주요 안전관리

최근 급증하는 근골격계 질환 등 직업병에 대한 사례가 많으며, 요통은 반감지 않은 손님으로 찾아온다. 이에 현대자동차(주)에서는 척추 교정의 하나인 거꾸

로 매달려서 척추를 늘려 바르게하는 것에 착안하여 전 작업장에 철봉대를 설치하여 작업중 전신 스트레칭으로 요통 등의 예방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엔진, 변속기공장에서 손 협착재해 방지를 위해 안전봉을 제작비치하여 손으로 절대 위험구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협착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STOP 기법 도입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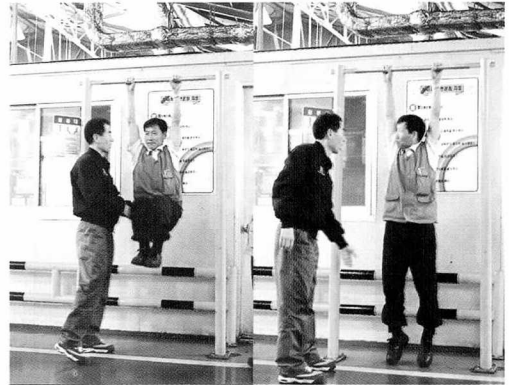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은 금년도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선진 안전활동인 STOP기법을 도입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10월부터 단위공장별로 1개 시범부서에 실시하고 있다. 미국 듀폰사에서 개발된 STOP기법을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에 적합하도록 하여 이번에 시범적용하고, 다시 수정보완하여 2002년 1월부터 전공장에 확대 적용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재해감소에 큰 효과를 기대해 본다.

이벤트를 통한 안전의식 고취

이 곳 현장에 가면 “자신의 안전을 행운 상품권처럼 운(運)에 맡기지 말라”라는 안전포스터를 볼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다치지 않은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만큼 안전한 행동으로 작업에 임한 결과이고, 확률임을 알리는 포스터이다. 그런데 이곳에는 행운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인 즉석복권과 같은 행운권을 아이스크림 포장지내에 행운상품권을 삽입하여 지급한다.


이 상품권에는 “안전! 오늘도 운(運)에 맡기시겠습니까?”가 나오면 당첨이 되는 것이다. 당첨된다는 것은 운인데, 안전은 운이 아님을 역설적



▲ 요통재해 예방을 위한 철봉대

으로 홍보하고 있어 근로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활동이다.

이 밖에 사전 안전심사제도, 전열기구 및 난방기구 사용허가 제도, 흡연통제 및 흡연장소 관리, 각종 안전보건교육 등 다양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내 Cable-TV로 월 1회 중식, 야식 시간 약 4-10분정도로 사고사례, 안전교육 및 홍보내용으로 제작방영하고 있으며,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이 곳을 통해 문서관리 뿐만 아니라 환경안전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한예로 교육실적관리와 토막교육자료를 공유하는데,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의 “서진구” 안전과장의 열의를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올려놓은 토막교육자료에서 볼수 있다. 서진구 안전과장은 현장실정에 맞는 안전교육시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었다.

끝으로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취재: 최종덕〉

